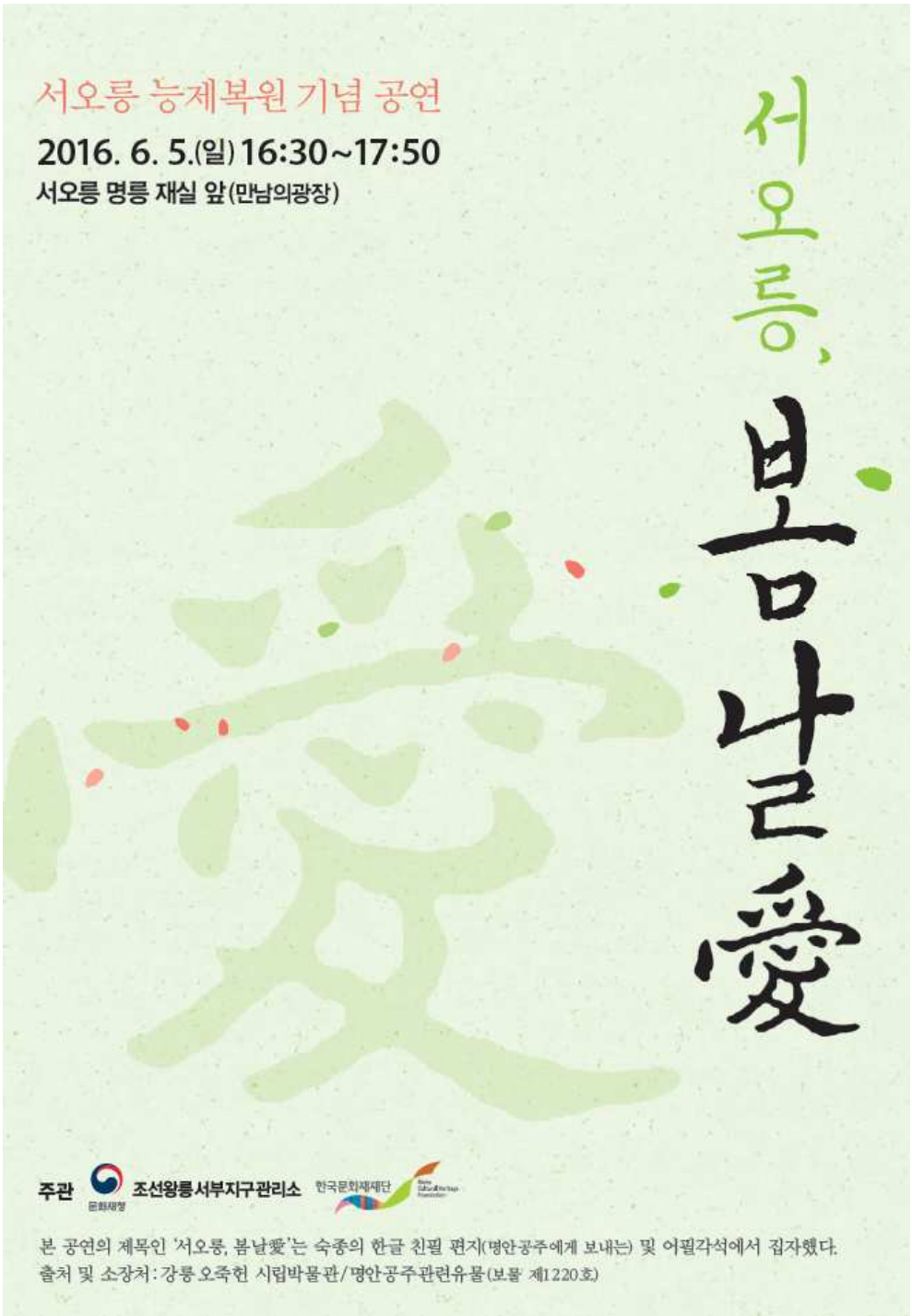
(붙임 1)

안내 홍보물


서오릉 능제복원 기념 공연
2016. 6. 5.(일) 16:30~17:50
서오릉 명릉 재실 앞(만남의광장)
서오릉,
봄날愛
주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한국문화재재단
본 공연의 제목인 '서오릉, 봄날愛'는 숙종의 한글 친필 편지(명안공주에게 보내는) 및 어필각석에서 집자했다.
출처 및 소장처 :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명안공주관련유물(보물 제1220호)

서막. 봄날愛, 어린 왕비 님 그리다.

이팔청춘 어린 왕비의 애절한 사연
인원황후의 넋을 위로하고 부정함을 쫓는 벽사의 춤 처용무

1장. 열여섯의 꽃다운 나이로 왕비가 되다.

새로운 왕비의 탄생을 알리는 간택 의식무
왕의 간택에 화답하는 인원왕후의 가례 예악

2장. 봄바람 가슴에 드니 사랑이로구나.

왕과 왕비의 백년해로를 축하하는 축제 행렬
꽃과 나비처럼 서로를 그리고 아끼는 사랑가춤
왕의 넋을 기리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부채춤

3장. 어린 왕비, 백성의 어미로 태어나다.

백성의 신명을 북돋는 연희 줄타기
국가의 안녕과 태평세월을 기원하는 대동무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에 위치한 서오릉은 500백년 조선왕조사 중 역사 드라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후궁에서 일약 중궁전으로 도약한 여인이 있는가 하면, 수렴청정으로 최고의 권력을 맛본 여인도 있다. 그 주인공들은 바로, 조선 19대 임금 숙종과 그의 여인들이다. 그 중에서 명릉에는 쌍릉과 단릉을 볼 수 있는데, 쌍릉에는 숙종과 제1계비인 인현왕후가 나란히 누워있고, 그 뒤로 두 사람을 쓸쓸하게 지며보는 이가 있으니, 바로 제2계비 인원왕후이다. 숙종의 세번째 왕비 인원왕후… 그녀는 꽃다운 16세에 숙종의 제2계비가 된다. 그녀는 어려서 궁궐에 들어와서 그런지 매사에 엄격하고 강한 결단력으로 조선후기 궁중의 법도를 바로 잡고 몸소 실천한 지혜롭고 어진 왕비였다고 전해진다.
오늘, 서오릉에서 어린 신부 인원왕후와 숙종의 사랑을 그린 무용극이 펼쳐진다.



숙종대왕
김종우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인원황후
정송희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판소리꾼
박애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어름사니
권원태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이수자

(붙임 2)

사 진 자 료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공연>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권원태 이수자 공연>